



어린이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시작하십시오!

■ 기획 특집 ■ 파이디온 칼럼 ■ 파이디온 찬양 작사 이야기 ■ 하엘리와 함께해주세요 ■ 사역 탐방_충만한교회 유치부, 동원교회 유년부
■ 책 이야기 ■ 사역 후기_꿈마루 세미나, 침례신학대학원 지부, 서울장신 지부 ■ 생생한 선교지 이야기

기획 특집

배움 중심적인 사고와 기독교 교육

I. 들어가는 말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 구별되는 행위이긴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면 학생들이 배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과 배움은 동일한 현상이 아니며, 교사가 학생들과 배움 그 자체,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배움이 수반되는 교육을 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아무런 배움도 일으키지 못하는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가 배움을 수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특히나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배움을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반성에서, 오늘날 교육의 흐름은 점차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가르침 위주의 사고에서 배움 중심의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II. 배움에 관한 정의

배움이란 용어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담보하는 용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배움이라는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그들이 생각하는 배움의 원인, 과정 그리고 배움이 일어나는 장소 혹은 배움을 일으키고 싶은 영역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행동주의자들(Behavioral Psychologists)은 “경험에 의해 사람들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배움이라고 정의했고, 인지주의자들(Cognitivists)은 “인지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변화, 즉 생각이 바뀌는 것이나 새로운 정보가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을 배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인본주의 교육학자들(Educational Humanists)은 배움이 정서적/감성적인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 태도가 바뀌는 것”을 배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움에 관한 이들 세 학파의 강조점을 사람의 몸에 비유해본다면, 인지주의자는 머리에, 인본주의자들은 가슴에, 행동주의자들은 손과 발에 강조점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학자들은 배움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종합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배움을 ‘어떤 영역에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기준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그 변화의 원인이 경험(Experience)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변화가 지속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경험에 의해 생겨난 지식, 기술, 신념, 태도 혹은 행동의 지속적인 변화”를 배움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배움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배움

성경이 추구하는 배움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전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움을 인지적인 것으로만 이해한다든지, 정서적/감성적인 것, 혹은 눈에 보이는 행동의 변화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면에 치중하지 않고, 이 모든 영역이 통합된 배움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주석가인 위어스비(Wiersbe)는 야고보서 2장을 주석하면서 본문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과, 구원을 얻는 참 믿음, 이렇게 세 종류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에 의하면 “죽은 믿음(Dead Faith)”과 “사단/악마적인 믿음(Demonic Faith)”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가짜 믿음인 반면, “역동적인 믿음(Dynamic Faith)”은 참된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가짜 믿음은 전인격적이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죽은 믿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을, 사단적인 믿음은 지식이 감정을 수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 즉 살아 있는 믿음은 지성, 감정은 물론 행동의 영역에까지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추구하는 배움은 이런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추구하는 배움은 표면적인 얕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킬 만큼 깊고 강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19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 ‘기노스코(γινώσκω)’를 번역한 것인데,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뿐 아니라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바울은 에베소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전인격적인 배움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까지 배우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광대한 것이므로 이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이들의 배움이 표면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깊이 있는 것이 되기를, 영향력에 있어서도 아주 강력한 것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자인 우리가 추구하는 배움 역시도 깊이 있고, 강력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배움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며, 평생의 과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자라갈 것을 요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라고 부탁했고,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자라다’는 말은 모두 헬라어 ‘아욱사노(αὐξάνω)’를 번역한 것으로서 단기적인 성장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끝없이 배워야만 합니다. 결국 성경

파이디온 칼럼

결단코 필요 없는 일이 아닙니다

“어린이를 위해 한 일은 그 어떤 일도 결코 낭비된 것이 아니다.”
(Nothing Done for a Child Is Ever Wasted)

국제컴패션(Compassion International)의 총재였던 웨스 스탠포드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성장을 주시고 경제적 성장을 주실 때에, 상당수의 교회와 부모들은 다음 세대를 가버리 생각했습니다.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성장집착증’에 빠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다음 세대들에게 “주일학교는 지하실을 사용하세요”, “대충하면 돼”라고 말하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지만 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인구 감소 및 교인 감소를 경험하게 된 지금, 우리의 가벼움은 교회의 미래를 가능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 신앙은 제자리를 맴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회적 통념과 가치의 발밑에 깔려 주일에만 고개를 드는 정기적 일과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자주 여러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의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린이를 위한 일은 무엇이든 필요 없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회자의 의지가 있다고 종직자들과 성도들이 움직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움직인다고 교회 리더십들이 뒷바침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교회 예산은 조그만 여유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 및 개인 이기주의는 팽배되어 있고, 대부분의 크리스천 부모들조차 아이들이 우선 공부부터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럴 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굳이 순서를 따라 행한다면, 할 수만 있으면, 주일학교에 대한 전교회적인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최고 지도자로부터 모든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주일학교를 방문하고 교사들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신앙의 견고함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을 책임지는 교역자를 3개월만 파이디온 바나나농장 교육디렉터 과정에 보내주십시오.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은 ‘갓난아이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의 교회 교육 과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2014년, 파이디온선교회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디렉터 과정’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양육에 헌신하도록 격려하는 일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다양한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있는 부모야말로 최대의 스승이고 모본입니다.

무엇이든 잘 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자녀 양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한 일은 그 어떤 일도 결단코 필요 없는 일이 아닙니다.

고종율 목사

파이디온선교회 대표

이 요구하는 배움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배움을 평생의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의미의 배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배움을 일으키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가르침 중심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배움 중심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그 해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III. 배움 중심적인 교육

교육에 대한 배움 중심적인 접근, 다시 말해서 배움 중심 교육이란 교육이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가르침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일어나는 과정(Teaching-learning Process)이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교육의 초점을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보다는 배움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근래에 와서 교육자들 사이에 단순히 교사 중심적이고 내용 전달 위주인 교육 방법들을 학생 중심적이고 배움 중심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뿐 아니라, 교육 자체를 가르침 중심적인 것에서 배움 중심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배움 중심 수업은 또 다른 수업 방법이나 모델의 하나가 아니라, 교육에 관한 하나의 관점으로서, 교육의 목표, 내용 그리고 평가 방법 등의 교육 활동 전체를 ‘배움 중심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바꾸어보자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존의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하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쪽으로 우리의 교실을 바꾸어보자는 운동입니다.

배움 중심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의 성경적 근거

비록 “배움 중심 교육”이라는 용어를 일반학교에서 먼저 사용하긴 했지만, 배움 중심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들 중에는 성경적인 교육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인격적인 배움을 추구하는 점이

나, 배우는 이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교육 방법의 사용과, 배움에 있어서 공동체의 역할을 중요시 한다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배움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성, 감성, 그리고 행동을 아우르는 영역에서 전인격적인 배움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구약의 교육 명령으로 일컬어지는 신명기 6장 4-9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에 대한 지식은 물론, 그분을 향한 경외감과 그분을 섬기기에 합당한 행동을 가지고 사랑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바른 지식, 경외감, 그리고 적합한 행동을 가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자인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는 것뿐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를 가슴에 품고 말씀이 요구하는 행동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배우는 이 중심의 교육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언급된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덕목입니다(막 12:31, 약 2:8). 그런데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이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웃 사랑은 학생 상호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나타나야 하고, 배우는 이에게는 가르치는 이의 가르침에 대한 경청으로 나타나야 하며, 가르치는 이에게는 자기중심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이 중심적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상호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방법

“최대의 배움은 최대의 참여의 결과이다”라는 하워드 헨드릭스(Howard Hendricks) 교수의 말처럼, 배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배우는 이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상호성’과 ‘능동적 참여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는 배움을 일으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배우는 이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는 것이었고, 일방적 커뮤니케이션보다 쌍방향 혹은 다 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 이에 관해 질문하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답변을 듣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곤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셨을 뿐 아니라, 올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과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발견해가도록 인도하는 과정, 그리고 잘못된 생각에 대한 분명한 지적 등을 통해 제자들을 깊고도

온전한 배움에 이르도록 이끌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학생들의 참여가 배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교육가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내게 배운 이들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나요? 선불리 정답을 말해주는 대신 배우는 이들이 배운 내용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고 있나요? 잘못된 개념이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나요? 늘 더 깊은 차원의 배움으로 나아가도록 이들을 돕고 있나요? 리처드와 브레드펠트(Richards and Bredfeldt)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말을 더 적게 할수록, 학생들은 더 많이 배우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배움에 있어서 참여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동시에, 기독교 교육자인 우리가 무의식중에 얼마나 많은 배움의 기회를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빼앗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함께 배우고 다른 사람의 배움에 도움을 줌

배움 중심의 사고를 가진 이들은 좋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야말로 긍정적인 배움의 결과를 낳는 요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나, 협동하여 일하는 것, 배움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배움에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을 장려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행위들은 성경에서도 장려되는 행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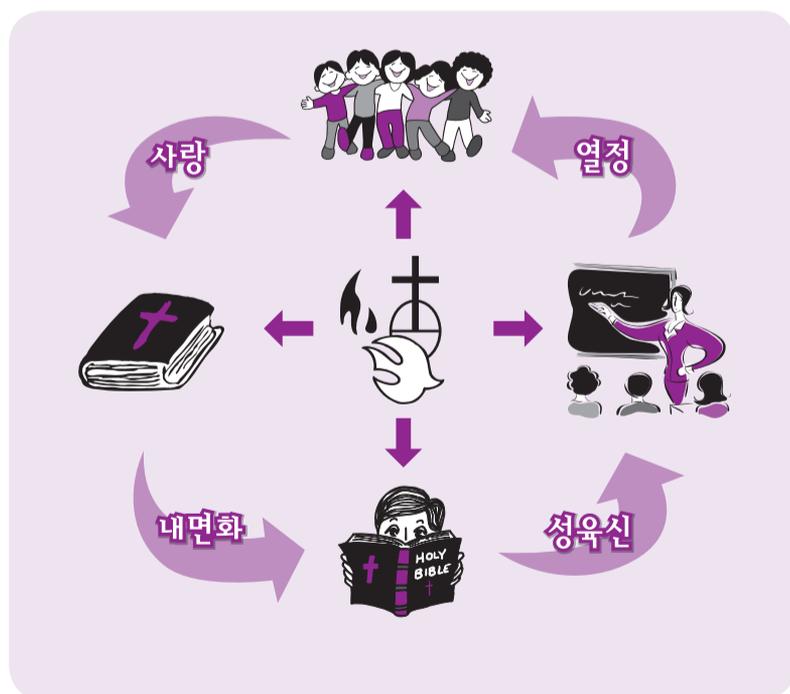
관계 개발의 중요성은 인간의 창조 기사 속에서 가장 먼저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돕는 배필을 지으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 상호 간에도 긍정적인 관계 맺음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창 1:27, 2:18-25).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특히나 전도서 4장 9-12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기록하여,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도서의 저자는 함께하는 것, 동료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야말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비책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돕는 자 혹은 동역자를 갖는 것이 혼자인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주석가인 엑셀(Exell)은 그리스도인들은 “상호 확인, 상호 권면, 상호 도움 그리고 상호 보호의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움의 상황에서라면 서로가 서로의 배움을 위해 확인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배움에 있어서 상호적인 기여의 예는 고린도전서에 등장합니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고전 14:30-31). 이 구절에서 바울은 예언하는 이들이 차례를 지켜 예언하도록 권면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나눌 기회를 줌으로써 서로가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분이시기에,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나눔으로써 혼자서는 도달하기 힘든 새롭고 균형 잡힌 이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움에 있어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일로 장려되어야 합니다.

IV. 배움 중심적 사고와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 교육의 5요소로 불리는 ‘가르치는 내용’, ‘가르치는 이’, ‘가르치는 방법/환경’, ‘배우는 이’ 그리고 ‘가르치시는 성령님’ 사이에 역동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르치시는 성령이 교육의 제 요소들 위에 역사하시고, 이를 관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주셔서 가르치는 이가 깨닫고 내면화시키도록 도와주셔야 하고, 교육의 방법과 환경에 역사하셔서 효과적인 가르침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할 뿐 아니라, 배우는 이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도와주셔야만 온전한 의미의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이인 말씀의 교사는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거룩한 성품을 계발해야 할 뿐 아니라, 배움을 일으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열정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더하여서, 배우는 이들이 배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주어야 합니다. 배우는 이인 학생들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배움에 참여함으로써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의 삶에 적용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사랑하므로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교사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육의 제 요소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 교육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성령이 이 모든 과정을 관장하신다는 사실과 함께,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서 보듯이, 가르침뿐 아니라 배움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대위임명령을 기초로 생각해보면, 기독교 교육은 특별한 두 가지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가르쳐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는 이들을 가르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믿지 않는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의 신분 변화를, 후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으로의 변화, 즉 예수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을 일으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핵심적인 변화, 즉 배움을 일으키는 것이 되게 하려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배움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가르침 중심의 기독교 교육을 배움 중심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교사는 자신의 교육 의도와 교육 목표 그리고 기대되는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동시에, 학생의 의도와 관심, 필요를 파악해야 하고, 그들의 배움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주일학교와 교회 교육의 기존 구조를 바꾸어 서라도 가르침의 행위가 배움을 수반하도록, 가장 적합한 구조를 띠어야 할 것입니다.

V. 나가는 말

기독교 교육자인 우리는 말씀을 가르쳤으나 말씀을 들은 이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로 오래 고민해왔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많이 가르치려 노력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배움이 라는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파즈미노(Pazmino)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모두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역할은 가르치는 이들을 돕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잘 배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에게 배운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배움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필자가 2013년 가을, 복음주의 교육학회에서 발표한 “배움중심의 사고를 통한 기독교교육의 회복”(2013 복음과 교육 겨울호 등재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천 도서

Eavey, C. B. *Principles of Teaching for Christian Teachers*. Grand Rapids: Zondervan, 1981

Issler, Claus, *How We Learn*, Ipf & Stock, 2002

로버트 파즈미노, *기독교교육의 기초*, 도서출판 디모데, 2003

양승현, *크리스천 티칭*, 도서출판 디모데, 2012



장주동 목사 | 교육학 박사

- 총신대 및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 박사 과정 졸업
- 파이디온선교회 기획 팀 팀장

전도사 학교

2월 3일(월) AM 9:00-PM 7:20



주일학교 및 사역의 큰 그림을 제시하여 바른 목회 방향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를 위해 주일학교의 리더십의 역할과 기능, 목회 방향에 따른 부서 계획 세우기, 주일학교 전도, 설교, 목회 원리 등을 제공합니다.

대상 목사, 강도사, 전도사, 부장, 부감 등 주일학교 지도자
(강사 과정은 대학 졸업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지

등록비 강사 과정 1월 20일까지 9만 원/ 1월 27일부터 10만 원/ 1월 28일부터 12만 원(교재, 강사 자격증, 자료 CD, 강의 MP3, 점심 및 간식 포함)

일반 과정 6만 원(교재, 점심 및 간식 제공)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2013년 12월 23부터 등록 가능)

문의 김진현 목사(070-4099-7713)

다음 세대 설교 세미나

2월 17(월)-20일(목)



주일학교 학생들의 발달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설교 준비 과정과 방법을 배워 실습과 발표를 통해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세미나입니다.

기간 3박 4일 합숙 **대상** 어린이, 청소년 교육부서 설교자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지

강사 양승현 목사(Ph.D. 파이디온선교회 사역자 훈련원장, 세대교회 담임)

등록비 2월 3일까지 30만 원/ 2월 10일까지 32만 원/ 2월 11일부터 35만 원
(강의안, 숙박, 식사, 간식 포함)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2013년 12월 23부터 등록 가능)

문의 김진현 목사(070-4099-7713)

CEE 강사 훈련 세미나

2월 24, 25, 27, 28일(월, 화, 목, 금) AM 9:00-PM 7:10



CEE(Christian Education by Extension)는 사역자들이 먼저 훈련받고 교회 현장에서 교사 및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 기독교 교육 과정입니다. 교사 세미나뿐만 아니라 교사 대학 및 소그룹 지도자 양성, 성경 개요반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울 교사 및 사역자, 평신도 지도자, 성도를 훈련할 목회자 및 평신도 사역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목 24일(월) CEE 1-1 크리스천 티칭 25일(화) CEE 1-2 승리하는 삶
27일(목) CEE 1-3 한눈에 보는 성경 28일(금) CEE 1-4 반목회

대상 정규 대학 졸업 또는 동등 학력(교단 인준 신학교) 소지자로서 교회 교육 지도자, 소그룹 인도자, 선교사 등 (단, 일반 과정 제외)

장소 주 은혜교회(서초구 반포본동 1313번지 반포프라자 314호, 홍문군 목사 시무)

등록비 강사 과정 각 과목당 2월 11일까지 11만 원/ 2월 18일까지 13만 원/ 2월 19일부터 15만 원(교재, 강사 자격증, 자료 CD, 강의 mp3, 중식 및 간식 포함)

일반 과정 각 과목당 6만 원(교재, 중식 및 간식 포함)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2013년 12월 23부터 등록 가능, 과목별 선착순 50명)

문의 도은아 목사(070-4099-7723)

주님의 자녀 <2008년 믿음의 빛> 수록곡

<신나는 성경탐험> 구약의 두 번째 과정 음반 제작을 위해 작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고백을 담아 조금씩 썼던 가사들로 인해 가사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담은 앨범이기에 기도하며 시편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편 18편을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시편 18편을 통해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계속 묵상하였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느꼈던 그때의 그 감동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써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나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떠 떠나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늦 활을 당기되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 여호와와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르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18편은 시편에서 네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적들로부터 계속해서 구원해주심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고통이 연속되는 삶 속에서도 인생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주심으로 평탄한 걸음을 견도록 안전하게 하시며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계획하고 이끄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윗처럼 나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완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작사 김주현 / 작곡 이소정

완 전 하 - 고 신 실 하 - 신 하 나 님 그 말 씀 따 - 라
 매 일 매 - 일 살 아 가 - 는 우 린 주 님 의 자 녀 - 내 가
 걷 는 걸 - 음 걸 - 음 - - 을 당 당 하 게 하 - 시 고 내 가
 가 는 걸 - 음 걸 - 음 - - 을 평 탄 하 게 하 - 시 니 살 아
 계 신 하 - 나 님 - 구 원 의 반 석 되 - 시 - 네 그 -
 이 름 - 높 여 감 사 와 영 광 돌 리 리 -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며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걸음도 당당하게 평탄하게 하실 거라는 고백을 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주신 마음을 가사에 담고 더 아름답게 찬양하도록 다듬어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가사와 곡이 완성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소망과 방패 그리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의 삶을 승리케 하여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주현 강사

- 감단중앙교회 소년부 예배 인도자
- 교회학교 어린이찬양 디렉터
- 파이디온선교회 문화지역 팀 강사



성가대를 위한 워십 아카데미

일시 2월 3, 4일(월, 화) PM 7:00-9:00
대상 어린이 성가대 지도 교사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지
내용 발성, 지휘, 운영 등 성가대 지도의 기본과 '어린이를 위한 파이디온 합창곡'에 수록된 합창곡 강의가 진행됩니다.
등록비 1월 20일까지 24,000원/ 1월 29일까지 27,000원/ 1월 30일부터 30,000원
문의 권효정 간사(070-4099-7736)

예배 인도자 세미나

일시/ 지역 1차 서울(강남) 2월 17, 18일(월, 화) PM 7:00-9:30
 2차 수원, 일산 2월 22일(토) AM 10:00-PM 5:00
 3차 서울(강북) 2월 24, 25일(월, 화) PM 7:00-9:30
대상 학령전, 학령기 부서 찬양 인도자 및 사역자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지
내용 예배와 찬양, 다음 세대 예배 인도자의 의미와 자세에 대한 이론과 콘티 짜기, 멘트법, 진행 방법 등 예배 인도의 실재를 배웁니다. 아울러 예배곡도 직접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학령전, 기 부서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등록비 1차 2월 3일까지 24,000원/ 2월 12일까지 27,000원/ 2월 13일부터 30,000원
 2차 2월 8일까지 32,000원/ 2월 17일까지 36,000원/ 2월 18일부터 40,000원(점심 제공)
 3차 2월 10일까지 24,000원/ 2월 19일까지 27,000원/ 2월 20일부터 30,000원
문의 전희영 간사(070-4099-7715)



2014 파이디온 겨울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큰 비전을 심어주세요~

주제 세계를 품는 아이들

저녁 강습회 일시: 2014년 1월 13-14일(월, 화) PM 6:00~10:00

장소: 서울(신반포교회, 홍문수 목사 시무),
부산(영안교회 가야성전, 박정근 목사 시무),
대전(추후 홈페이지 공지)

등록 방법: 현장 등록

1일 강습회 일시: 2014년 1월 11일(토), AM 9:30~PM 5:00

장소: 총신대학교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11월 22일부터 등록 가능)

대상 학령전, 학령기 주일학교 지도자 및 교사

문의 순현주 전도사(070-4099-7706)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흥미진진한 구약의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신나는 성경탐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주제 신나는 성경탐험 2(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저녁 강습회 일시: 2014년 1월 13-14일(월, 화) PM 6:00~10:00

장소: 서울(남서울교회, 화중부 목사 시무),
부천(열방교회, 이덕승 목사 시무),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목사 시무),
광주(성림침례교회, 김종이 목사 시무),
부산(영안교회 가야성전, 박정근 목사 시무)
대전(추후 홈페이지 공지)

등록 방법: 현장 등록

1일 강습회 일시: 2014년 1월 11일(토), 18일(토) AM 9:00~PM 5:00

장소: 한국성서대학교(11일), 총신대학교(18일)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11월 22일부터 등록 가능)

대상 7세~6학년 주일학교 지도자 및 교사

문의 김동구 목사(070-4099-7703)

• 자세한 내용은 파이디온 홈페이지 www.paidion.org를 참고해주세요.

• 본 교재는 겨울캠프, 성경학교, 제자훈련, 주일 오후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쇠퇴하는 교회 교육의 본질과 비전을 회복시킬,
10만 크리스천 교사 양성 운동

크리스천 티칭 일일 세미나

우리는 믿음의 스토리텔러가 끊어져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크리스천 티칭인 당신을 통해 믿음의 스토리텔러를 찾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티칭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야 할 진정한 크리스천 티칭인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해법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으로 40년을 달려온 양승헌 목사와 파이디온선교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사



양승헌 목사
교육학 박사,
파이디온선교회
사역자 훈련원장,
세대로교회 담임



고종울 목사
파이디온선교회 대표

일시

1월 9일(목) **익산** 이리신광교회(장덕순 목사 시무)

1월 16일(목) **구미** 구미남교회(천석길 목사 시무)

1월 20일(월) **수원** 원천교회_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김요셉 목사 시무)

1월 23일(목) **울산** 대영교회(조운 목사 시무)

1월 27일(월) **서울** 영광교회(황성은 목사 시무)

자세한 내용은 파이디온선교회 홈페이지(www.paidion.org)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담임 목사, 교육 목사, 부서 사역자, 부장, 부감, 교사, 선교사, 평신도 등
강의 시간 오전 9:00~오후 6:00

등록비 35,000원(사전 등록 할인 각 세미나 일자별 7일 전까지 30,000원)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2013년 12월 9일부터 등록 가능)

문의 김진현 목사(070-4099-7713)

초청 영상



하엘이와 함께해주세요



하엘이를 얻은 기쁨

강병호 목사 and 이한나 전도사는 2006년 결혼을 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2007년 신대원을 입학하면서 LJU(작은 예수의 모임)를 개척하여 어린이 사역에 소명을 갖고 힘있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파이디온 대구 지부를 섬기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 마음과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갖는 것은 무슨 뜻이신지 5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유산의 아픔도 세 번이나 있었지만, 여러 의학적인 기술로 2013년 3월 하엘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신앙고백이 있는 아이로 자라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간절히 담은 이름입니다. 예쁜 아이를 안으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지금도 그 감격은 생생합니다.

하엘이의 기침

하엘이가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 처음 기침을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동네 소아과를 다니면서 약을 지어 먹였고, 호전이 있는 듯했으나 62일째 되는 날, 고열이 있어 병원에 가니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폐렴”과 “모세기관지염”을 진단받았고, 호흡 치료와 항생제 치료를 했습니다. 조금 좋아지면 퇴원하고 다시 입원하기를 반복하였고 세 번째 입원할 때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3개월간 병원 생활을 하다가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위해 8월 13일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희귀 난치병, “낭성섬유증”

서울에서도 “폐쇄성 세기관지염”을 진단받아 치료하고 있었지만, 확진은 미뤄진 채 검사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낭성섬유증”이라는 희귀 난치병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이 병은 폐와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질환으로 90퍼센트가 폐질환으로 사망하고, 30대를 넘기기 어려워 우리나라 낙태허용법에도 적용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열 명도 되지 않는 정말 희귀 질환이고, 명확한 치료 방법 또한 없습니다.

기적을 바라며

오병이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아이들에게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니 “이건 의료적으로 현실 가능하지 않아. 예후가 좋지 않아. 방법이 없대”라고 말하는 저희들의 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저희는 약하고 약한 엄마, 아빠였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킬로그램도 안 되는 작은 몸으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아이 앞에서, 수많은 검사의 고통으로 울고 있는 아이 앞에서, 하루에 두 번 30분 면회할 때마다 우는 아이를 두고 나가야 하는 상황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치료 방법도 전문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음을 너무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확신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하엘이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주 조금씩 더디지만 좋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고, 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엘이를 감싸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도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음식을 하면서까지 하엘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엘이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으로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CIS 기독교 TV <7000미라클-예수사랑 여기에>라는 프로그램에 하엘이의 이야기가 방송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하엘이를 위한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주를 위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병호 목사 · 이한나 전도사
파이디온선교회 대구 지역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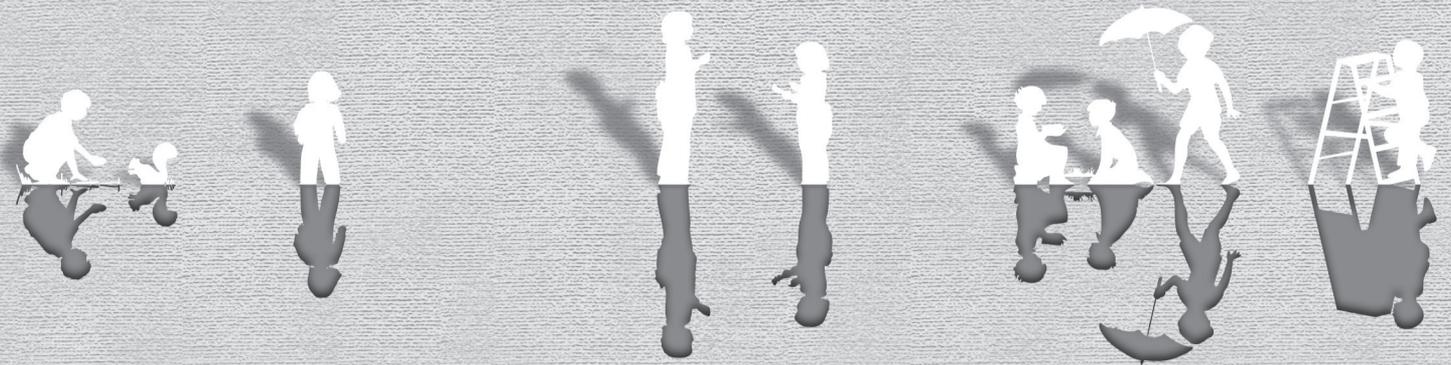


하엘이 기도 제목

1. “낭성섬유증”이라는 병의 본질적인 치료 방법이 나오도록.
2. 하엘이가 호흡 근육이 늘어서 호흡기의 도움을 조금씩 줄여 완전히 자가 호흡을 하도록.
3. 감염이 취약한데 모든 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도록.
4. 중환자실에 홀로 있지만 영적, 정서적 평안이 있도록.
5. 특수분유와 고가의 수입약으로 인한 상당한 병원비가 은혜로 채워지도록.
6.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도록.
7.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식구들이 집중하여 기도의 삶을 살도록.

후원 외환은행 620-224734-721(예금주: 이한나)





사역 탐방

놀이터보다 더 즐거운 충만한교회 유치부

“엄마! 오늘은 유치원 가는 날이야?
교회 가는 날이야?”

충만한교회 유치목장에 출석하는 다섯 살짜리 한 여자 어린이의 질문을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납니다. 교회 가는 주일을 기다리며 아침마다 엄마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아이의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담당 목사로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수님 만나는 일이 즐겁고, 찬양이 동요보다 즐겁고, 성경 말씀이 동화보다 재미있다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일학교 사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유치목장 어린이들은 매주 새친구들이 등록하며 이제는 신발장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있어 감사합니다. 5세부터 7세 어린이 150여 명이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새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이라 환경이나 여건이 많이 부족하고 반별 모임 할 장소도 협소하고, 앉을 자리도 비좁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이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이들이 손을 들고 가슴으로 찬양드릴 때가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환경적으로는 풍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불편함 가운데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사들과 아이들이 함께 양도와 배려를 실천합니다. 어쩌면 너무 풍족한 환경보다 조금 부족한 환경이기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목장은 자랑할 만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함을 알고 반가운 인사로 아이들을 맞이함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회개를 강조하시는 충만한교회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우리 아이들도 회개 기도에 익숙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함으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늘 묵상합니다. 설교 내용은 예수님 복음 중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찬양과 주기도문 외우기, 말씀 암송 등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어린이라고 절대로 알볼 수 없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잘 배우고 잘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교사들이 더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2부 활동으로는 그날 들었던 말씀을 확장할 수 있는 연계 활동을 흥미롭게 진행합니다. 말씀을 아이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기획합니다. 그중에서 아이들은 만들거나 요리 활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창조하신 것처럼 아이들도 크래커와 치즈로 얼굴 걸작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걸작품’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나를 멋지게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매주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목자들은 연구하고 회의하며 준비합니다. 이 과정이 어떤 때는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준비 과정을 통해 목자들도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색종이로 교회도 접고 양도 만들면서 유치부 수준에서 성경 말씀을 표현하며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움으로 함께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목자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

의 사랑을 전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의 즐거운 표정이나 은혜받은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부모님께 전송함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을 쌓아갑니다. 그럴 때 교회와 부모는 계속해서 아이에 대해 공감을 갖게 되고, 함께 아이를 돌보는 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함께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동역자 의식을 갖게 합니다.

여름에는 새친구를 초청하는 대축제를 엽니다. 축제를 통해 새친구 포함한 500여 명의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함께 예배 교회에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복음 안에서 즐거운 활동을 합니다. 지난여름에는 “아빠 어디가!” 이벤트로 믿지 않는 아버지들도 많이 참여해주었습니다. 어린이들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오히려 믿지 않는 아빠로 전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새로 온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아가 그 가정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변화와 기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유치목장은 누구나 올 수 있고 언제나 환영해주는 행복한 놀이터입니다. 이 행복한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도 친절하시고, 치료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한 없이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놀이터보다, 컴퓨터 게임보다, 텔레비전보다, 교회로 달려오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유치목장은 전도의 폭발입니다. 양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충만한교회 안에서 유치부 어린이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부모님을 전도하는 꼬마 목자들입니다. 이 꼬마 목자들이 오늘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받아 예수님 안에서 무럭 무럭 성장해가기를 기도합니다.



고민정 평신도 사역자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 충만한교회 유치목장 담당

말씀으로 자라나는 동원교회 유년부



저에게 있어 동원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첫 사역지이기도 하고, 많은 것을 알게 해주고, 저를 성장시켜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다섯 명의 교사들과 함께 초등학교 1-3학년까지의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입김이 나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벌써 그 겨울이 세 번이나 지나갔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유년부의 첫 목표로 삼은 것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배 전 말씀 쓰기’와 ‘일대일 복음 전하기’입니다. 예배 전 말씀 쓰기는 한 교사가 낸 아이디어로, 유년부 예배 시간보다 일찍 오는 아이들을 보고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2부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을 따라 일찍 오는 아이들이 매주 5명쯤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시간에 공놀이나 딱지치기 또는 술래잡기를 하면서 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이용해 말씀 쓰기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가능할지 확신이 없었지만, 일단 아이들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공책을 하나씩 펴고 잠언부터 써내려갔습니다. 이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사실을 심어주고자 말씀을 쓴 어린이들에게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어느덧 3년, 지금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자마자 말씀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다 쓴 어린이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쓰기가 정착될 즈음에 일대일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이것은 새친구 반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새친구반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

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 예배 시작 20분 전, 새친구를 포함한 3학년 아이들에게 일대일로 복음을 들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듣는 동안 마는 동안 하다가, 점차 귀를 기울이고 질문을 하기도 하면서 약 20분간 복음을 들었습니다.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아이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태도가 눈에 띄게 변화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아이가 이 시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4학년 남자 아이였는데, 집이 멀어서 할머니와 함께 11시 예배를 나와 유년부 예배를 드리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말씀 쓰기는 아예 하지 않았고, 복음을 듣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장난이 심하기로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말씀이 심기고, 자라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두 명의 교사가 함께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복음을 전하면 거부할지도 모르니 좀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어김없이 주일이 찾아왔고, 아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저와 교사들은 눈짓으로 사인을 주고받으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핑계를 대고 잠깐 불러낸 뒤, 십여 분 동안 두 명의 교사가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 교사들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밝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복음을 듣는 내내 침착하게 복음을 들었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침 그날 설교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6-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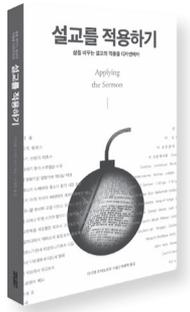
내년에는 복음반을 운영하여 4주 동안 아이들에게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가르칠 생각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훗날, 이 아이들이 커다란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해봅니다.

정혜원 전도사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
• 동원교회 유년부 담당



설교자들을 가장 당황시키고 가장 전율케 하는
“설교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답할 실제적 가이드!



다니엘 오버도르프 지음
이재학 옮김 | 262쪽
값 12,000원



삶을 바꾸는 설교의 적용을 디자인하라

설교를 적용하기

목회자들에게 설교란 오래된 소화불량처럼 늘 부대끼는 최고의 부담이자 가슴 벅찬 사명이다. 그 중에서도 적용은 설교 준비라는 등정에서 9부 능선과 같다. 매우 숙련된 설교자들조차 자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험난한 여정을 위해 이 책은 노련한 세르파이자 멘토가 되어준다.

책 속의 책!

해든 로빈슨, 윌 윌리먼, 탐 룡, 밥 러셀, 빅 펜츠
오늘날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다섯 명의 설교학자가
공개하는 설교 적용의 노하우

크리스천 기도

주기도를 내 기도로
내 기도를 주기도로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이다!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기도 레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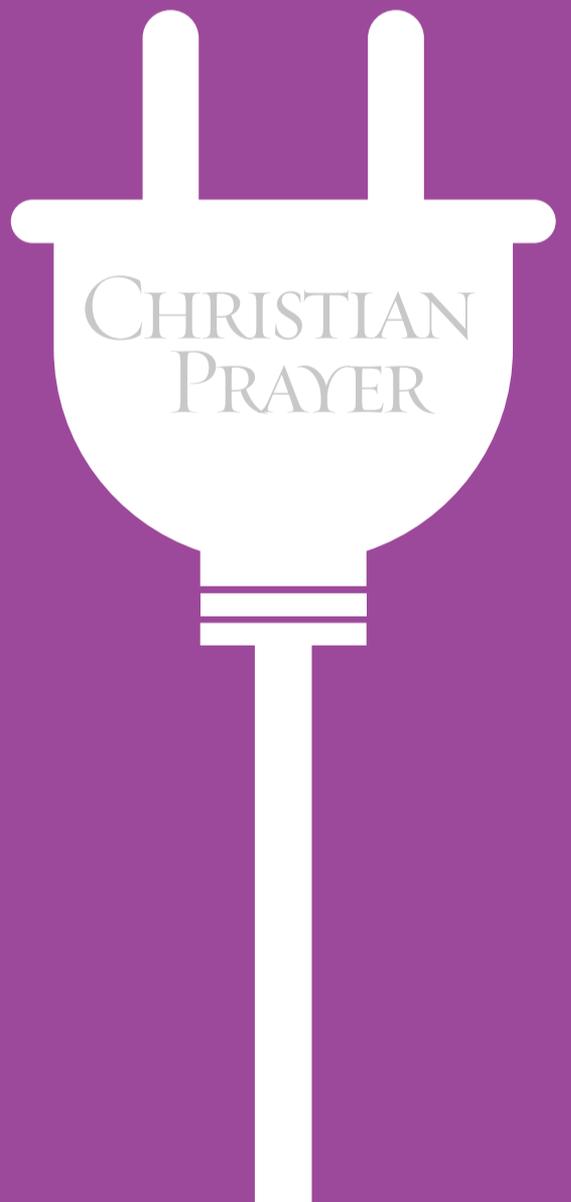
사람은 자신이 하는 기도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 올바른 기도를 배우는 일은 크리스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레슨이다. 예수님의 삶을 고스란히 지켜본 제자들은 그분의 깊고 능력 있는 삶, 충만한 영성과 인격이 깊은 기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기도의 도를 구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제시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하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날줄로, 내 기도를 씨줄로 삼아 아름답고 조화로운 기도 카펫을 짜나가야 한다. 이처럼 온전한 기도의 모범을 배울 때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친밀한 사귀어 있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꽃히는’ 기도를 시작하라!



양승헌 지음 | 값 12,000원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영원토록 중요한 이유」
 브루스 윌킨슨 외 | 92쪽 | 도서출판 디모데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남학생용(for Guys)과
 여학생용(for Girls)이 있습니다.

책 이야기

청소년의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의 시작은 늘 새롭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한바닥 적어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멋진 한 해를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작심한 지 삼 일까지 하루하루 그야말로 진격의 군사와 같이 살아갑니다. 하루 중 혹이라도 그냥 흘러버리는 시간이 있을까 싶어 시간을 꼭꼭 눌러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루 24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청소년들도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게임 시간 줄이기, 책 읽기, 엄마에게 짜증 내지 않기 등등. 하지만 이 역시 작심은 삼 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삼 일이 지나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살자”라며 다시 컴퓨터 앞에 앉고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아침을 다 보내고 정오가 되어야 일어나 하루를 후회로 시작하곤 합니다.

이처럼 어른들이 보기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오늘’ 하루가 ‘영원’과 직접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쉽게 마음대로 흘러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 ‘영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영원토록 중요한 이유」라는 작은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영원토록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행한 모든 일, 즉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은 그 모든 일 때문에 장차 천국에서 놀라운 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9쪽).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주십니다.

이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5쪽). 천국에서 우리는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은 우리가 이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한 보상입니다(28쪽). 하나님

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말과 행동과 태도에 대해 상을 주십니다(1장).

‘상’을 받는 자리는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웬지 혼이 날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심판은 우리가 이땅에서 잘한 모든 일과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한 평가의 시간입니다. 이땅에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2장).

장차 심판대에 섰을 때, 심판의 불이 우리가 한 모든 일을 다 드러낼 것입니다(고전 3:13).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위해 한 일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견디고 남겨질 것입니다(46쪽). 그리고 그렇게 남은 하나님과 관련되었던 모든 ‘선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3장).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미 알고 있는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계속 해서 더 많이 보여주실 것입니다(4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멋진 상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골 3:2/ 5장).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영원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에는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상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굳은 마음을 먹은 청소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들의 결심과 행동은 쉽게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지성의 불꽃과 영혼의 스파크를 일으켜준다면, 영원과 연결된 오늘 하루의 삶을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김대만 목사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파이디온선교회 청소년 사역 팀 선임간사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영원토록
 중요한 이유



일시 1월 20일(월) PM 1:30-5:00

대상 청소년 사역자, 교사 장소 예수님의사랑교회(한기영 목사 시무)

내용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영원토록 중요한 이유(디모데)」를 실제 교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2개의 강의와 콘텐츠 활용 매뉴얼을 소개해드립니다.

등록비 15,000원(강의안 및 사역 매뉴얼, 강의용 자료)

문의 김대만 목사(070-4099-7707)

부모와 십대 자녀를 이어주는
30일 대화 활용 세미나

일시 3월 31일(월) PM 12:30-5:00

대상 청소년 사역자, 교사 장소 예수님의사랑교회(한기영 목사 시무)

내용 청소년 도서 「부모와 십대 자녀를 이어주는 30일 대화(디모데)」를 교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세미나입니다. 부모 교육을 위한 2개의 강의와 콘텐츠 활용 매뉴얼 및 실행 중인 교회의 사례들을 소개하여 부모와 자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등록비 3월 24일까지 27,000원/ 3월 25일부터 30,000원
 (「부모와 십대 자녀를 이어주는 30일 대화」, 강의안, 강의용 자료, 간식 포함)

문의 오세영 목사(070-4099-7716)

새해에도

파이디온스퀘어가 여러분 가까이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힘껏 돕겠습니다.

Feliz Navidad!
Shalom!
新年好!

복된 새해 되세요!
Happy New Year!
Nuovo Anno felice!

WELCOME 2014!



저학년을 위한 제자 훈련 교재
꿈마루



성경 암송 찬양



공과 주제에 맞는
교육 동영상



설교, 기획안, 음원 자료
각종 다운로드 콘텐츠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에 필요한
다양한 절기 상품



여름, 겨울 VBS 교재 및 자료



주일학교 주보



어린이 제자 훈련 용품
제자 팔찌



어린이 제자 훈련 용품
타이 버튼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롤링 페이퍼 시리즈



추천도서

2014년에는
기도 마음도 믿음도
쑹쑹!
쑹쑹!



사역 후기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도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이었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경에 다섯 번이나 나왔을까요? 다시 한 번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확인하며 다음 세대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제 강의가 끝나고 순현주 전도사님이 꿈마루 제자훈련 1과를 시연하는 것으로 공과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실제 아이들과 제자훈련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진행 방법, 활동 팁, 주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교사들은 앉아서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강의 중간중간 아이들의 입장에서 활동도 직접 해보면서 열심히 강의를 들었습니다. 10과가 끝날 때쯤, 목이 쉬고 갈라져 계속 기침을 하면서도 끝까지 열정적으로 강의하던 강사 전도사님의 모습이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녁 6시까지 강의가 계속되었고, 강의 시간 내내 주님이 주신 소명과, 이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꿈마루 세미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쉬는 시간마다 더 좋은 방법으로 제자훈련을 시도하기 위한 생각들을 나누는 참 힘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일 날 아침, 성격이 활발한 아이들은 스스로없이 반가움을 표현하며 저에게 외락 안깁니다. 하지만 말수가 적은 아이들은 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경계를 하고, 조금 친해지면 멀리서 눈을 마주치고, 조금 더 친해지면 주변을 맴맴 돌면서 선생님이 발견해주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제가 발견하고 안아주면, 싫지 않은 표정으로 안겨 있다가 이내 밝은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갑니다. 말을 아직 못하는 아이나 서투른 아이는 말없이 다가와 안깁니다. 이런 유치부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기도를 할 때, 작은 입술로 찬양을 할 때, 조금은 어눌한 발음으로 성경을 외을 때에는 정말 눈물이 날만큼 예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 아이들이 예쁘실까요?

사랑스런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복음을 심어주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교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한 방법과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다 ‘파이디온의 꿈마루 제자훈련 세미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이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가능할까?’를 고민하며 이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는 아침 1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꿈”과 “정상”이라는 뜻의 “마루”가 합쳐져 “예수님의 맑은 최고의 꿈”이라는 “꿈마루”가 되었다는 설명에 이어, ‘제자훈련이 아이들에게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주제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며 투자해야 하는지를 맘을 닦으며 열정적으로 강의하였고, 그 말씀을 들으며 불확실했던 제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어린이가 있다면 어려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동참하게 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끊임 없는 노력과 기도로 다음 세대에 초점을 두는 파이디온선교회의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최중숙 교사
• 공군중앙교회 유치부



꿈마루 제자훈련 세미나

일시 1차 2월 10일(월), 2차 15일(토)
AM 9:30-PM 6:30

대상 주일학교 사역자, 부장, 교사, 부모

지역 서울, 대전, 부산(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지)

내용 7-9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10주 동안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교재와 제자반 운영 방법을 나눕니다. 저학년의 특성에 맞춘 재미있는 영적 활동으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길러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등록비 68,000원(어린이용, 교사용 교재, 식사 포함)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1월 6일부터 등록 가능)

문의 도은아 목사(070-4099-7723)

청소년 사역자 컨퍼런스

일시 2월 24일(월) AM 10:00-PM 6:00

대상 청소년 사역자, 교사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지

내용 Preliminary Session을 통해 청소년 사역의 교육학적, 시대적 필요와 원리를 정리하고 배울 수 있으며, Workshop Session을 통해 실제적인 청소년 사역에 대한 깊이 있는 도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등록비 2월 3일까지 32,000원 / 2월 10일까지 36,000원 / 2월 11일부터 40,000원 (강의 바인더, 간식 및 식사 포함)

문의 김대만 목사(070-4099-7707)



사역 후기

침례신학대학원 파이디온 사역자 세미나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파이디온선교회를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 활동하던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 후 파이디온 동아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모여 공부하고 기도하며 친목도 다졌다. 그러던 중 동아리 리더에게서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파이디온 사역자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니 함께 논의해보자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중축이 되는 몇 명이 모여 어떤 주제로 침례신학대학교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많은 의견과 논의 끝에 우리는 '전도와 정착'이라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파이디온선교회에 요청한 후, 원우회와 대학원 사무실과 일정을 조율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자유관 아가페 홀에서 '2013 침신 파이디온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일정이 잡힌 후 동아리원들과 함께 포스터도 붙이고 주위에 홍보도 하였다. 사무실에서는 열심히 문자 홍보도 해주었다. 그리고 리더인 한소연 전도사님과 조성은 전도사님은 세미나 일주일 전부터 학교 자유관 입구 쪽에 등록 부스를 설치하여 열심히 참석자들을 모집하였다. 수업을 마루면서까지 열심히 섬기는 모습들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척 안쓰러웠다.

드디어 당일! 모두 오전 8시 30분까지 모여 준비를 하기로 했다. 나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야 하기에 1시간 늦는다고 양해를 구하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 첫 기차를 타고 학교로 향했다. 기숙사에 얼른 짐을 놓고 기타 가방을 메고 속히 아가페 홀로 갔다. 여기서저 각자 맡은 대로 현수막을 달고, 영상 장비를 세팅하고, 도서 판매와 안내, 간식을 준비하고, 파이디온 교재를 소개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 다들 즐거운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아 보였다. 으레 행사를 준비하다보면 다들 일에 집중하면 얼굴은 굳어지고 서로 마음 상하는 일들이 태반인데 파이디온선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서로 배려하며 준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나는 찬양 인도와 시설 준비를 맡았다. 침신 파이디온 사역 세미나를 함께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있어서 무척 감사했다. 드디어 10시 25분부터 "전도, 정착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2014 침신 파이디온 사역자 세미나가 열렸다. 파이디온선교회에서 준비한 세션의 영상을 본 후, 동아리원들과 함께 찬양을 섬겼다. 찬양을 부르는 내내 쓰임받음에 감사했다. 찬양이 끝난 후에는 "어린이 교회학교 진단과 대안"이라는 소주제로 파이디온 대표 고종올 목사님의 강의를 이어졌다.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말씀은, 이 시대가 어떠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의를 마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감사하게도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이 맛있게 식사하였고, 분리수거까지 완벽하게 해주었다. '역시, 침신대!' 하며 편하게 뒷정리를 할 수 있어 감사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어린이 전도! 정착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으라!"라는 소주제로 김은경 전도사님의 강의를 이어졌다. "아이들의 수가 줄어든 것이 전도할 대상자가 줄어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단호한 슬로건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 안에 존재하는 구차한 변명을 바로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 네일 아트 전도, 손바닥 전도, 달고나 전도, 큐브 전도, 풍선 전도, 파티 전도, 어린이 선교사 프로그램, 해피 스쿨 등에 대한 내용을 들었고, 한국교회의 상황이 어떠한 자신이 맡고 있는 사역지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뛰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도전받은 유익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지봉현 목사님의 '신입반 운영'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신입반을 운영하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30퍼센트 미만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주일학교의 영혼에 대한 대책이 생각보다 미비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한편으로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우리 유·초등부도 신입반이라는 명칭만 있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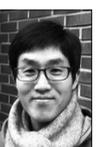
이들이 교회에 오기 싫은 이유를 조사한 통계 자료였다. "1위가 울동을 모른다, 2위가 사도신경/주기도문을 못 외운다, 3위가 아침에 졸리다, 4위가 친구가 없다, 5위가 재미없다" 순이었다. 충격을 받았다. 아, 아이들의 생각은 이처럼 다르구나!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사역을 해야겠구나! 아이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던 점을 깨닫게 되어 감사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다. 세미나를 통해 조금이나마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었다. 예전에 파이디온선교회의 한 목사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우리가) 막아서지 못하면 한국교회에 더 이상의 다음 세대는 없다"라는 각오로 늘 긴장감 속에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나 또한 동일하게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디온 사역자 세미나가 정말 소중하고 감사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학부와 신대원 등을 합쳐 약 2,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과 참석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참석자는 60~70명 정도에 불과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할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의 사역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다. 앞으로 파이디온 동아리의 사역이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서기를 기대해본다. 파이디온 사역자 세미나를 준비해준 파이디온선교회와 동아리, 그리고 학교와 원우회에 감사를 전한다.

김태후 전도사

• 침례신학대학원 재학
• 행복한교회 유·초등부 담당



서울 장신 지부 파이디온 컨퍼런스

“다음 세대 준비를 위한 컨퍼런스를
파이디온 서울장신 지부에서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파이디온선교회의 도전적인 권유로 시작된 것이 바로 “2013 파이디온 서울장신대학교지부 교회학교 사역자 컨퍼런스-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였다.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우리에게 약 6주 뿐이었다. 과연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큰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품고 도전하기로 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계획해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산도, 일할 사람도, 경험도 없었다. 심지어는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힘든 사역을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위해 한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기로 했다.

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진행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셨다. 좋은 계획서를 짤 수 있도록 해주셨고, 협력을 구하기로 한 기관들(학교, 원우회, 여원우회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로 하였다. 파이디온선교회에서는 뛰어난 강사와 여러 가지 물품으로 지원을 약속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한 번도 말해보지도 보지도 못한 여러 일꾼들을 보내셨다. 더 감사한 것은 한 푼도 없는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통해 부어주셨다.

드디어 컨퍼런스다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마음을 모으고 비전을 나누며 눈물로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작된 컨퍼런스. 비록 우리가 계획한 100명이라는 수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첫째 날의 전체 강의와, 둘째 날의 분과별 강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도전을 느끼며, 다시 한 번 헌신을 다짐할 수 있었다. 모든 컨퍼런스를 마치고 한 명 두 명, 큰 도전과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말해주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밖에 할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모임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써 노력한 임원들과 팀장님들 그리고 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정적으로 땀 흘리신 고종율 목사님, 강사 분들, 관계자들, 파이디온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쪼개서 헌금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협력해주신 기관들 원우회, 여원우회, 신학회, 동아리연합회, 학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규덕 전도사

• 파이디온 서울장신대학원 지부 회장
• 방초교회 아동부 담당



1, 2월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사용,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인정한 말씀 사역 기관

디모데성경연구원 이 준비한 세미나와 함께 하세요!

구약 · 신약의 파노라마

성경의 내용을 그 흐름에 따라 재미있고, 효과적이며, 창의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이 세미나는 특별히 성경의 중요 인물, 장소,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각 책의 핵심 단어와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묶어 놓았다.

구약 · 신약의 파노라마는 모두 154개(구약 · 신약 각 77개)의 모션(움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강의 사이사이에 재미있고 기억하기 쉬운 시청각 자료(구약 : 110여 개, 신약 : 90여 개)를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돕고 성경을 흥미진진하게 배우게 된다

날짜 구약 2014년 1월 13, 14일

신약 2014년 1월 20, 21일

시간 AM 9:30~PM 6:00

장소 푸른나무교회

(김형민 목사 시무,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05-2호 해풍빌딩 3층)

등록 25만 원(선착순 40명)

· 중식 제공, 강사 패키지 포함

(학생용 교재, 인도자 지침서, 강의 실황 mp3, 강의 동영상, 모션 카드)

※ 구약의 파노라마 강사 교육 세미나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세미나 등록을 하신 후 5만원을 선입금해야 세미나 등록이 완료됩니다.

Stewardship 스튜어드십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으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이끄는 세미나이다.

- 일시 2014년 1월 6, 7, 9일
- 장소 서울, 광주, 대전

영적 성장의 7단계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으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이끄는 세미나이다.

- 일시 2014년 1월 16, 23일(목)
- 장소 목동 지구촌교회

하나님이 빛으시는 성품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으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이끄는 세미나이다.

- 일시 2014년 1월 27일(월)
- 장소 추후공지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피플 퍼즐

행동 유형(DISC)을 알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사라진다! 실제적이어서 쉽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다.

- 일시 2014년 2월 10일(월)
- 장소 추후공지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

로마서 전체를 쉽고 명료하게 정리해 주며, 12장 통해 성숙한 제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정리해 준다.

- 일시 2014년 2월 17일(월)
- 장소 추후공지

재능 플러스 알파 리더

6과로 구성된 이 세미나에서 우리는 개인의 재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13가지 중요한 선택을 살펴볼 것이다.

- 일시 2014년 2월 24일(월)
- 장소 추후공지

■ 강사 자격을 원하시는 경우 수강 후 강사 패키지(인도자 지침서, 강의 실황 mp3, PPT)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강사는 해당 세미나의 업데이트 자료와 세미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성경연구원 www.worldteach.co.kr 02)2652-0919

생생한 선교지 이야기

특별한 아이들, MK를 만나다

저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2013 파이디온 VBS)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월 28일~31일까지 3박 4일 동안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인도차이나 한인선교사대회’ MK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인도차이나 한인 선교사대회는 인도차이나에 있는 5개국(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대회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한 캠프가 MK 캠프입니다.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아이들과의 만남은 늘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캠프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이 꼭 그랬습니다. 낯선 장소, 그리고 처음 보는 아이들과의 캠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 부담은 아이들을 향한 설렘으로 덮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캠프를 함께 이끌어갈 멤버는 총 열한 명. 찬양강사 박미경 간사님을 포함해 부산 참사랑교회 한성철 담임 목사님과 청년들, 저와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조민혁 전도사가 함께해주었습니다. 열한 명의 멤버가 50여 명의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정도 인원이면 여유 있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들부터 열세 살의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과 함께해야 했기에 늘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세미나 일정과 동일하게 아침 8시 30분에 시작하여 밤 10시까지, 마치 가족처럼 아이들과 모든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아이들의 모습은 캠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자신의 명찰을 받기까지 한 줄로 서서 차분히 기다렸고, 신발을 벗으면 늘 가지런히 벗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찬양과 예배에 금방 적응하여 활짝 열린 마음으로 뛰며 찬양하고, 집중하여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첫날 첫 번째 집회 시간, 읊이 고난 가운데 보여주었던 용기 있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집회이기에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싶었습니다. 먼저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의 고난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인도하기 전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애들아, 너희들도 힘들 때 있지? 너희들에게 고난은 어떤 것이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은 생각보다 크고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로 태어난 것이 어려움이예요” “더운 나라, 못 사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요” “부모님과 함께 어울릴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한국의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선교사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부담감이 고스란히 고난에 대한 고백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술을 열자마자 불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낯선 땅으로 이민을 와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한국인과 현지

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 모든 환경들이 아이들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읊이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음을 나누며, 선교지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3박 4일 동안 성경의 인물이 보여준 믿음에 대해 함께 배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뛰놀며, 함께 먹었습니다. 집회 시간마다 아이들은 자신과 부모님과 선교지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여서인지 3박 4일의 일정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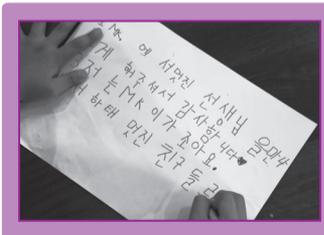
마지막 날, 첫날 선교사 자녀로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들과 불평, 불만들을 늘어놓았던 아이들에게 감사편지를 쓰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고백은 첫날의 고백과는 180도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한국 어보다 영어가 더 익숙한 아이들, 교사들이 말하는 어려운 단어의 뜻을 몰라 자꾸 되묻던 아이들이 새하얀 종이를 받아들고 서툴지만 그 안에 감사의 고백들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선교사라서 감사합니다” “캠프를 와서 멋진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처럼 선교사가 될 거예요” “공항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캄보디아에 못 올 뻔했는데 안전하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이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칼같이 날카롭게 내뱉던 아이들의 입술이 감사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 아이들은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기로 결단했고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리움, 한국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리를 잘 따라주었던 아이들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울음을 터트리며 우리를 안아주었습니다. 내년 미얀마에서 열리게 될 선교사대회에서 다시 한번 만날 것을 기약하며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캠프의 끝이 아쉽고, 헤어짐이 아쉽지만 이 아이들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것을 기대합니다. 삶으로 믿음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멋진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한 사역에 함께해준 부산 참사랑교회 멤버들에게 감사합니다.

곽봉준 강도사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허남교회 초등부 교육디렉터
- 파이디온선교회 VBS 팀 강사



선교안테나

주일

양영학, 한경신 선교사
MK: 성지, 성애, 성극

사역지: 홍콩 및 X국
사역: 서점 운영, X국 지역 책 보급

1.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늘 선교 사역에 감사가 넘치고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3. 성경학교의 안전과 졸업생들의 사역이 열매가 있도록.
4. 선교사 훈련원의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 자녀들의 결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김종진, 이은숙 선교사
MK: 은혜, 은총

사역지: 태국
사역: 교회 협력 및 다음 세대 양육

1. 주님이 세우신 소수민족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2. 파송 교회와 협력 교회를 통하여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도록.
3. 김 선교사 가정의 건강을 위하여(새로 발견된 이은숙 선교사 담석이 없어지도록).
4. 홀리시티 치앙마이와 프라오를 위하여.
5. 큰 딸 은혜와(대 2) 은총이(10학년)의 새학기 학업을 위하여.

월요일

이미경, 데일 선교사
MK: 룩, 조에

사역지: 탄자니아

1. 타베아 선교사의 건강과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와 보내온 차를 받는 순조로운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2. 조셉과 하산의 학업에 은혜 주시도록.
3. 잭슨의 정직한 영의 회복과 공동체 안의 모든 청소년들을 위하여.
4. 새로 바뀌는 무함빌리와 오션로드 병원 담당자들이 우리 사역을 계속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5. 신기다의 주술사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영혼들의 자유함과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도록.
6. 도도마 공동체의 포도밭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도록.
7. 백삼조 후원자들이 많아져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드레, 미스바 선교사
MK: 드보라, 아모스

사역지: 국내
사역: 국내 선교 자원 동원과 훈련

1. 주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선교사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2. SUFAN(북아프리카 번역 프로젝트)에서 그 동안 번역된 스무 권의 책들을 철자법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도록.
3. 가족과 양가 부모님, 형제들을 위하여.
4. 양가 형제들 가정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안드레 부모님이 세례 받으실 믿음이 있도록.

화요일

김용준, 이옥경 선교사
MK: 하람, 하진, 이레

사역지: 아르헨티나
사역: 교회 협력 및 다음 세대 양육

1. 장년 성경공부(매주 목)에 이어 청소년 성경공부(Adolescente)가 시작되는데, 이 모임이 활성화 되어 주일학교 사역으로 이어지도록.
2. 저희 부부의 영적 강건함,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선교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아브라함, 사라 선교사
MK: 아람, 요셉, 한나

사역지: S국
사역: 교회 개척 및 교육 사업

1. 악한 거짓 영에 사로잡혀 무지하게 살아가는 약 15억의 불쌍한 무슬림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도록.
2. 고난과 핍박이 시작된 이슬람권과 아랍권 안에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이름 모를 고난받는 현지 사역자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주시도록.
3. 이 시대 무슬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사역자들이 주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파수꾼의 사명을 힘들지만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요일

이영민, 김명숙 선교사
MK: 문희, 홍호

사역지: 국내
사역: 본부 사역

1. 김명숙 선교사의 건강과 신앙의 회복을 주시도록.
 -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뇌경색, 공황의 기능 저하, 수술한 눈이 회복 되도록.
 - 가장 중요한 당과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도록.
2. 아내를 옆에서 제대로 잘 간호하고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건강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더 주님께 집중하도록.

민윤기, 안은자 선교사
MK: 하영, 하람

사역지: 태국
사역: 신학교 교육, 어린이 전도, 훈련

1. 가족 모두가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가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2. 아프리카 교회가 전도를 열심으로 하는 교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3. 고 2와 고 3이 된 두 자녀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 이 함께하시도록.

목요일

김혜정 선교사

사역지: C국

1. 매주 토요일 A교회에서 15명이 교사 훈련을 받는데, 이 과정을 통해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사역에 더욱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2. 강사 교육을 통해 각 주일학교 현장과 미래를 바라보며 사역을 통해 헌신된 주일 학교 전임 사역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3. 검손과 운율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여 현자인 사역자들과 하나될 수 있도록.
4. 지혜롭게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5.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동생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이태하, 김혜한 선교사
MK: 은혜, 은선

사역지: 캐나다
사역: 교회 협력 및 다음 세대 양육

1. 예배자로 먼저 바로 서도록.
2. 사역 가운데 주님의 기쁨부으심을 경험하도록.
3. 은혜, 은선의이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 이심을 알게 되도록.
4. 기도와 재정의 평생 동역자가 일어나도록.

금요일

박종덕, 신유현 선교사

MK: 세하, 주하

사역지: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780여 종족 중 미전도 종족인 220여 종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2. 깔리만탄에서 함께 동역하는 12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멋진 사역 팀을 이루어 자립 교회들을 세워 나가며, 전도처 개척 및 교회 개척 사역, 성도 제자훈련 사역, 아이들 청소년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3. 나하야(Nahaya)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사 마무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4. 바바르(Babar)지역, 투마방(Tumabang)지역, 뽀마얌(Pakmayam), 따렝(Tereng), 빠위스(Pawis), 마눌(Maur) 지역에 교회, 기도처 그리고 유치원이 세워지도록.
5. 홈스쿨을 통해 가르치는 세하, 주하 두 아이가 믿음 안에서 빠르게 자라도록.
6. 함께 동역하게 될 권태운 선교사 가정의 건강과 언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전미자 선교사

사역지: 도*
사역: 코트콜라 족 사역

1. '룩바' 종족 교회의 성경학교 세미나를 통해 각 교회에 미니캠프를 하도록 도전을 주어, '베*냉의 가운가 마을교회에서 교사 26명과 어린이 248명의 미니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서 미니캠프가 진행되고, 이를 통해 어린이 사역이 활성화되도록.
2.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자녀 교육 세미나', '연대 기적 성경읽기 세미나', '주일학교 교사 모임' 등 기독교 교육 세미나와 훈련들을 통해 말씀이 잘 전해지고, 잘 뿌리내리도록.
3. 룩바 종족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적극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각 교회의 선교 전도 리더들이 세워져 훈련될 수 있도록.
4. 팀 종족을 위한 복음 방송이 20주년이 되는데,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인 복음 전파 계획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5. 모*렘 자녀들을 위한 기쁨 클럽이 아징기리 마을에서 시작되었는데, 도우미들의 부족으로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우미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토요일

정바나바, 이에스터 선교사

MK: 예은, 예광, 예희

사역지: 소아시아(이슬람권)
사역: 신학교 교육, 어린이 훈련, 전도

1. 갈라디아 사랑교회의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2. 성경 통신자들을 잘 돌보고, 빌립보 훈련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3. 함께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해외 다음 세대를 위한 후원 헌금

2013년 10월 1일~2013년 11월 30일

* 괄호 안의 숫자는 구좌수입니다(가나다 순), 한구좌: 5,000원

후원하신 분 고종율(200), 강숙희(8), 김민기(8), 김영식(40), 김영인(20), 김영희(2), 김용원(10), 김정(12), 김정해(2), 김중철(10), 김지형(4), 김효영(4), 박영란(12), 심라영(20), 양승현(20), 유상실(20), 이정남(12), 장주동(10), 전혜란(20), 조만제(12), 조익득(4), 진양숙(8), 최광희/박호주(60), 최수정(4), 최규남(8), 최형(20), 하희옥(6)

후원 교회 남광교회(40), 남서울은혜교회(400), 동백사랑의교회(20), 대영교회(40), 동원교회(40), 사랑의교회(40), 새로남교회(40), 서현교회(40), 성광교회(10), 세대로교회(120), 송월교회(40), 수지수정교회(40), 양산성광교회(20), 영화교회(80), 예사랑교회(12), 수원원천침례교회(80), 주은교회(20), 충만한교회(6), 호산나교회(40)

후원 단체 ㈜에스코컨설팅(60)

- 후원 헌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해외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 문의: 070-4099-7710

후원 안내

온라인으로 후원금 보내기:

처음 후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연락처를 꼭 말씀해주시요.

- 국민은행 767437-01-009907 파이디온선교회
- 신한은행 140-009-951346 파이디온선교회
- 우리은행 1005-402-245623 파이디온선교회
- 농협 301-0128-1734-11 파이디온선교회

자동 이체로 후원금 보내기:

매번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 창구에서 은행 간 자동 이체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3년까지 예정하실 수 있습니다(타 은행일 경우 300원의 수수료 부과).

파이디온 소개

파이디온이란 말은 헬라어로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파이디온선교회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막 10:14)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 사역을 펴고 있습니다.

- ① 세계의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 ②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하는 일꾼을 세웁니다.
- ③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합니다.
- ④ 다음 세대를 세울 도구를 빚습니다(도서출판 디모데).
- ⑤ 다음 세대의 문화 속에 영원한 진리를 담습니다.

파이디온 기도 제목

연구개발 팀

준비 중인 사역과 콘텐츠에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의 필요를 잘 담아내 유용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VBS 팀

1. 겨울 강습회에 참여하신 교사들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로 무장되는 시간이 되도록.
2. 2014년 여름 교재 집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와 교회의 필요에 맞게 담아내고, 집필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청소년사역 팀

1. 2014 여름 교재가 잘 집필되고 출간되고, 특별히 함께 집필하는 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2. 청소년 사역의 새로운 일들이 기획되고, 잘 계획되어 실행되도록.
3. 함께 동역하는 강사단들의 사역과 교회를 통하여 청소년 사역의 좋은 모델과 대안들이 세워지도록.

문화사역 팀

1. 2014년 여름성경학교 음반 작업의 과정마다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2. 새해 함께 하게 된 신입 강사와 파이디온 선교단 신입 단원이 잘 적응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3. 문화사역 팀의 세미나를 통해 다음 세대 예비 인도자들이 잘 훈련되고 예배를 잘 섬기도록.

사역자훈련 팀

1. 2014년 상반기 사역자훈련 팀 세미나 홍보와 준비에 지혜를 주시고 영향력 있는 세미나로 한국교회와 사역자, 교사를 섬길 수 있도록. (크리스천 티칭, 전도사학교, 꿈마루 제자훈련, 다음세대설교세미나, CEE 강사훈련, 바나나 농장, 목요교사)
2. 2014년 새롭게 개편될 바나나 농장 교육디렉터 양성 과정이 이 세대의 필요에 맞게 개편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교회협력 팀

1. 대구 지역 총무 강병호 목사(이한나 전도사) 가정의 딸 하엘이를 치유 해주시고(희귀난치병 남성성유증), 하엘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2. 해외의 다음 세대 지도자 훈련 사역이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3. 지역 지부의 사역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성장해가도록.

파이디온 뉴스

1. 강사 오디션

2013 파이디온 티칭 강사 오디션이 지난 11월 25일에 있었습니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게 될 6명의 신입강사가 선발되었습니다. 6명의 신입 강사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 열정 있는 사역을 펼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입 강사 김이슬 전도사, 김모세 전도사, 김수연 강도사, 이성호 전도사, 이용휘 전도사, 한규덕 전도사

2. 종강 및 졸업식

2013년 하반기 바나나 농장 종강 및 33기 졸업식이 11월 25일에 있었습니다. 수료한 사역자들과 13명의 졸업자들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사역에 귀하게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자 박미경 전도사, 광현휘 전도사, 권한이 전도사, 김혜미 교사, 박보배 전도사, 박원설 전도사, 송기식 전도사, 윤요한 전도사, 이용휘 전도사, 정순옥 전도사, 정혜원 전도사, 최현주 전도사, 한다정 전도사

3. 송년 모임

지난 12월 9일(월)에 있었던 파이디온선교회 송년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섬김'을 주제로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섬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 졸업

파이디온 강사로 섬기는 박종인, 서인원, 이주안, 정혜원 전도사가 총신 신대원을 졸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 있게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5. 동역

박종인 전도사가 VBS 팀 간사로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멋진 동역을 이어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6. 사임

VBS 팀 장순배 목사가 교회 사역(사랑과은혜교회)을 위해 파이디온 선교회를 사임하였습니다.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견고해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7. 변경

청소년사역 팀 김대만 목사가 <비전트리>의 새 기획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기 위한 지혜로 알찬 회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내

<비전트리>를 구독하기 원하신다면

파이디온 홈페이지에서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aidion.org에 로그인 후, 회보 신청란에 e-mail 혹은 우편 발송 선택

회보 후원금으로 파이디온 사역에 동참해주세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회보를 접할 수 있고 다음 세대의 가슴에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1년에 10,000원_ 회보 후원금은 회보 제작, 발송비에 사용됩니다.

신한은행 140-009-951346/ 파이디온선교회

* 문의: 070-4099-7710